

25개 법학전문대학의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경희대학교, 아주대학교 응시자 전원 합격 -

1. 경희대, 아주대, 한국외대 두드러져...

경희대와 아주대, 한국외대 로스쿨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희대 로스쿨은 60명 정원에 50명 합격으로 입학정원 대비 83.3%를 기록해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이어 아주대와 한국외대 로스쿨이 입학정원 대비 82%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두 학교 모두 50명 정원에 41명이 합격했다. 특히 경희대 로스쿨은 50명이 응시해 50명 전원이, 아주대 로스쿨은 41명이 응시해 41명 전원이 합격, 합격률 100%를 기록했다.

그러나 SKY 및 서울 지역 로스쿨은 체면치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0명이 정원인 서울대 로스쿨은 116명이 합격해 77.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전국 로스쿨 가운데 10위다. 고려대 로스쿨은 입학정원 대비 81.7%를 보여 4위의 성적을 받았지만, 연세대 로스쿨은 77.5%를 차지해 건국대와 공동 8위에 올랐다. 서울 지역의 다른 로스쿨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화여대 로스쿨이 5위를 차지했으며, 성균관대와 한양대 로스쿨이 각각 6위와 7위로 10위권에 포함됐다.

2. 제주대, 거점 국립대 로스쿨 중 1위

제주대 로스쿨은 40명의 입학정원 중 30명이 합격해 75%의 합격률을 기록, 거점 국립대 로스쿨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제주대에 이어 부산대와 전남대가 각각 72.5%를 기록 공동 2위를 했으며, 전북대(71.3%), 경북대(66.7%), 충남대(65%), 강원대(65%), 충북대(57.1%) 순으로 합격률이 높았다.

3.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법무부는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올해처럼 입학정원 대비 75%

로 할 계획이다.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입학 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도 변호사시험 예상 응시인원을 1900~2050명으로 보고 있다"며 "응시 인원의 증가로 올해보다 실질 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고〉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자(명)	합격자 수(명)
경희대학교	50	50
이주대학교	41	41
고려대학교	99	98
한국외국어대학교	42	41
서울대학교	119	116
서강대학교	31	30
성균관대학교	103	98
한양대학교	83	77
제주대학교	32	30
인하대학교	38	35
연세대학교	101	93
이화여자대학교	89	81
전남대학교	96	87
부산대학교	97	86
건국대학교	35	31
서울시립대학교	43	37
중앙대학교	42	35
강원대학교	31	26
충남대학교	79	65
영남대학교	58	47
경북대학교	101	80
전북대학교	71	56
원광대학교	50	38
동아대학교	72	53
충북대학교	56	40

※ 자료 : 각 로스쿨 추정치